

보도시점 (온라인) 2025. 7. 14.(월) 16:30
(지 면) 2025. 7. 15.(화) 조간

여름철 성수기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

-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, 여름철 성수기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
- 정부, '성수기 수상안전 특별대책기간'(7.15.~8.17.) 운영

□ 정부는 7월 15일(화)부터 8월 17일(일)까지 '성수기 수상안전 특별대책기간'으로 지정하고,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.

○ 본격적인 방학·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, 계곡, 캠핑장 등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인파가 늘면서, 물놀이 현장을 중심으로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.

□ 이에 앞서, 행정안전부는 7월 14일(월)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'여름철 성수기 대비 수상안전 관계기관 대책회의'를 개최*하고, 물놀이 안전관리 특별강화 대책을 점검했다.

* 참석: 행정안전부, 교육부, 문화체육관광부, 농림축산식품부, 환경부, 해양수산부, 소방청, 해양경찰청, 17개 시도 등

○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요원을 전국 256개 개장 해수욕장에 2,466명(지난해 대비 174명 증가), 하천·계곡·유원지에는 3,019명(지난해 대비 244명 증가)을 배치한다.

○ 6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물놀이형 유원시설(275개소)과 수영장(1,622개소)에 대한 안전점검도 8월까지 완료한다.

○ 행정안전부는 과장급 공무원을 지역 책임관으로 지정해, 물놀이 현장의 안전관리요원 배치 및 근무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,

- 지자체에서도 전담 공무원을 통해 위험지역 순찰과 예찰·계도 활동을 강화한다.

□ 이날 회의에서 김광용 본부장은 최근 안전관리요원이 배치되어 있었음에도 물놀이 안전사고*가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,

* 금강 상류 입수금지 구역에서 20대 4명이 물놀이 중 사망(7.9.)

○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함께 유사한 물놀이 위험구역을 신속히 점검하고, 경찰·소방 등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.

□ 한편, 행정안전부는 최근 물놀이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한 지역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완료했으며,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*은 조속히 보완할 것을 지자체에 요청했다.

* 안전관리요원 추가 배치,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비치, 표지판·현수막 등 설치·정비 등

○ 또한, 국민이 안전신문고를 통해 주변 위험 요소를 신고할 수 있도록 ‘물놀이 안전 집중신고기간’(6~8월)도 운영하고 있다.

□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“정부는 방학·휴가철을 맞아 국민께서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”라며,

○ “국민 여러분께서도 물놀이를 즐길 경우 기상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, 준비운동 실시, 구명조끼 착용과 같은 기본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란다”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안전예방정책실 재난안전점검과	책임자	과 장	박범수 (044-205-4240)
		담당자	사무관	강 철 (044-205-4242)
		담당자	사무관	박희성 (044-205-4251)

